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서울성경대학 내달 28일 개강

잡언 · 여호수아 · 데살로니가 · 신명기 등과 음악교실, 리더양성반

평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서울성경대학 제 7학기가 3월 28일(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학기에는 데살로니가반(아담반)을 비롯하여 잡언반, 여호수아반, 신명기반 등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음악교실과 리더양성반(L. T. C)과정도 예년과 같이 진행된다. 이번 학기 강의 시간은 화·목·금요일에 오전과 오후 각 1시간씩이다. 각 과목은 10주간의 강의를 계속되며 5월 마지막주 혹은 6월 첫 주 과목별로 각각 종강하게 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성경대학 제 7학기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등록금은 각 과목당 1만원이고 이번 학기에 처음 수강하는 성도에 한하여 입학금 5천원을 별도로 받는다.

제 6학기 서울성경대학의 강좌, 시간, 강사 및 개강일은 <표>와 같다.

서울성경대학은 말씀 공부를 통해 신앙 성숙을 도모하고자 친구약성경 전체를 강좌 과목으로 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 평생 교육 프

야, 야고보서, 말라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사무엘상, 스바냐 등을 공부했다.

서울성경대학 제 7학기 교과과정표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잡언	화요일 오전 6시	고경선 목사	3월 28일
여호수아	화요일 7시 30분	이규정 목사	3월 28일
데살로니가(아담반)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운 목사	3월 30일
신명기	금요일 오전 6시	이규정 목사	3월 31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허희철 집사 안진선 선생	3월 30일
리더양성반(L.T.C.)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정운돈 목사	3월 31일

로그림이다.

서울성경대학에서는 그간 욥기, 마가복음, 베드로전·후서, 아가, 다니엘, 사사기, 에스더, 히브리서, 빌립보서, 룻기, 마태복음, 요한서신, 요나, 느헤미

3월 교회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2월 27일	3·1절 기념주일
28일	청년부수련회
3월 1일	
3월 5일	여전도회 헌신예배
26일	3월 새가족환영회
27일	제 17학기 목회자세미나 개강 (5월 29일까지 10주간)
28일	서울성경대학 잡언반 · 여호수아반 개강
30일	서울성경대학 데살로니가반 · 음악교실 개강
31일	서울성경대학 신명기반 · 리더양성반 개강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와 함께 그 한 세대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혼이 힘을 잃고 있다.

다가오는 한 세대가 선진들의 얼을 이어받 아 더 큰 역사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순교적 피를 흘렸던 어 른들의 정신을 밀천삼아 살기만 바랐 을 뿐 원금까지 손해보는 생활에 급 급하다 보니 이제는 무기력, 무능력, 무정신으로 추락해 버렸다.

매년 3·1절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애국애족의 그 정신을 말로만 언급할 뿐 한번 도 살아 있는 정신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 고 올해도 안타까움과 애석함만 쌓일 뿐 아무 런 대책이 없다. 한편 피 뿌리는 일이 죽는 일 이고 결단과 포기와 자기부정의 선언이기에 한 세기에 한 번 정도 있는 사건인데 또다시 그런 순교가 있어야 할 만큼 우리 나라의 구

석구석은 어지럽다. 81년 전에는 33인이 일어나 순교자적 행동을 선포하므로 온 나라를 독립의 열기로 가득 채웠으나 지금은 인구증가 율과 기독교인 증가율로만 계산하더라도 500

고갈된 순교자의 피만 가지고 안타까와할 시기는 지났다. 우리 교회가 또다시 그 순교 의 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함이다. 500 명이나 필요하다고 놀랄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 인원수에 넣어달라고 애원할 수 있 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실 수 있으리라.

지금의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순교 의 기회이고 또 한 세기를 물려주기 위해 고갈된 순교이 피를 헌혈받아야 할 시간이다. 스테반의 순교가 초대 교회를 열게 했고 예수의 제자들이 흘린 보배 로운 피가 유렵의 선교를 꽃피게 했듯이 우리 의 거룩한 피로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바꿀 필요와 당위성을 실감케 한다.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고 갈된 순교자들의 피를 다시 뿌려놓는 3·1절 아침이 되고 싶다.

3·1절 제 81주년에 붙여

순교적 그 피가 고갈됨

김광선(장로, 출판국)

명은 넘어야 할 판이니 이 또한 절망적 상황 아니겠는가. 하기가 지금도 도굴같은 산속 기 도원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조금 넓히면 자기 교회 문제 정도 이니 말이다.

이사야 강해

여호와와의 구원

이사야 33장 7 - 16절

본문은 예루살렘이 산헤립의 침공에서 구원받은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7-9절은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10-13절은 그 위기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14-16절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때와 시기는 정해져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아시며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때에 일어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모릅니다. 다만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대할 뿐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므로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하나님은 사람이 낙심할 때 일어나신다

그 땅의 상태는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7-13절). 사자 같은 영웅이 울고 애곡하며 사신들은 평화 유지의 난관 때문에 슬피 울며 대로는 폐허가 되고 토지는 매년 황폐화되며 갈멜과 바산의 낙엽은 인간의 슬픔을 동정하듯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한 음성이 들립니다(10절). 이 음성은 인간의 모든 음모를 멸시하는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사태가 역전된 것입니다.

10절에는 '이제'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일어나시는 그때는 유대 민족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찌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때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때입니다. 그는 일어나사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그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앗수르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겨와 같고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은 짚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버

리시면 인간의 계획과 일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은 앗수르의 자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광경은 먼 데 있는 자, 곧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자, 곧 유대인들이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자도 보게 될 것이고 여호와와 역사를 목격한 자들

셋째,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손을 흔든다는 것은 마음에서 강력하게 배척하는 행동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은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넷째, 귀를 막아 피흘리는 피를 듣지 않는 자로 이것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섯째,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로 이것은 모든 악을 멀리 하고 보지 않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거를 임태하고 짐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니 내가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이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에 있는 자들이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종운 목사



도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3. 예루살렘의 회복

앗수르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회개를 촉진시킵니다. 앗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확인한 시온의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스스로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할 수 있겠는가" 를 물었습니다. 선지자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5 가지 종류의 사람이 공의롭게 행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첫째, 정직히 말하는 자로 이것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무엇보다 말이 정직해야 합니다.

둘째,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로 이들은 불의하게 빼앗은 것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중히 여깁니다.

자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시 15:1-5, 24:3-6).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소유하며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음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경건의 증표는 언제나 대인관계의 옳은 행실을 요구합니다. 대인관계가 옳지 않은 신앙행위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약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습니까?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거하므로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거하면 영적 양식이 풍부해질 뿐 아니라 그는 높은 곳에 거하므로 또한 인간적으로도 존귀한 신분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높은 곳에 거하여 영적으로 고상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서지영(유치부 교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라는 주제 아래 가졌던 유치부 겨울성경학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린다. 방학을 하지 않은 유치원이 많은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참석한 어린이의 숫자는 적었다.

처음에는 너무 실망하여 마음이 무거웠지만 주님께서는 또다시 기쁨을 주셨다. '기도'에 대한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준비된 프로그램들은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한발 한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어린 생명들의 모습을 보았을 땐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선생님들과 어린 생명들 간에 거의 1대1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각자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하나 하나 전해 주는 성경학교이기도 했다.

둘째 날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감은 어린 생명들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선 주님이 얼마나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지 부족한 내 자신이 바라볼 수 있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주의 말씀과 기도, 찬양이 모든 것들을 통해 유치부 어린이가 바르게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이 되길 기도한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소망

소은희(유년부 교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번 성경학교를 마친 이 시간, 이 찬양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한가지 소망을 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년부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고 우리는 귀하게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것과 초대받은 자는 기뻐해야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덕분에 난 오직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긴장감은 떨칠 수 없었다.

그러나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에 흠뻑 취한 아이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교사들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준비가 미흡하게만 생각됐던 프로그램들도 막상 진행되면서부터는 은혜 가운데 무르익어 교사나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어져 천국을 누렸다. 교사와 아이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서로에게 고백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으며 협력하는 여러 교사들과 돕는 손길들이 선을 이룸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어린이”를 목표로 바른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목표에 도달했다. 새 친구들도 많았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한다. 우리 안에 천국을 허락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영광을 돌린다.

짧은 성경학교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음 성경학교에 내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새로운 소망을 품어본다.

짧은 시간, 깊은 소망

조승기(고등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난 이런 소망을 갖고 이번 수련회에 입했다. 1박2일 간의 이번 수련회는 교회에서 열렸다. 너무도 익숙한 공간이었고 또 서울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나지 못해 맘 속에 못내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수련회를 마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난 고등부의 부흥에 힘써 기도했다. 그 이유는 첫 날 모인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할 순 없지만, 회장인 내가 느끼기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4면에 계속)

복되도다

하영수(장로, 초등부 부장)

복되도다

작은 소금이고 빛이지만
장차 이 땅을 밝게 비추려고
주 안에서 자라는 싹들이여!

복되도다

요양원을 찾아
병들고 외로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재물을 부리면서 기쁘게 해드린
사랑의 마음이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사탕을 입에 넣어 드리고

식사시중을 하고
얼굴을 닦아드리고
물도 마시우고
할머니가 주시는 밥을 받아먹기도 하고
그릇도 치워드린
사랑의 손길이어!

복되도다

친구와 장난치고
다투기도 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또 금방 웃으며 화해도 하고
최선을 다해 놀이를 하다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스런 발들이여!

복되도다

저들을 낳고 기르며
눈물섞어 기도드리는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십자가를 진 선생들의
사랑스런 희생들이여!

■...초등부에서는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 성경통독 시간, 찬양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둘째날에 순애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 뵙는 시간을 가졌다... ■

각 부서 소식

청년부수련회 내일부터

청년부수련회가 28일(월) - 3월 1일(수)까지 양수리수양관에서 개최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이종윤 목사, 고정선 목사이다. 청년부수련회를 끝으로 올해 우리 교회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겨울수련회는 모두 막을 내리게 된다.

교회합창곡집 모음

찬양위원회에서는 교회합창곡집을 모으고 있다. 각 가정의 책꽂이에 꽂혀 있을 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교회합창곡집, 개인적 연습을 위해 교회에서 가져가 아직 반납하지 않은 성가곡집 등을 모아 재활용하고자 함이다. 문의 및 제출은 사무국으로 하시면 된다.

베드로선교회 특강

베드로선교회에서는 28일(월) 오후 7시 만만나(☎ 568 - 5155)에서 가지는 월례회에서 "크리스찬의 성공벤처투자전략(코스닥과 장의 시장을 중심으로)" 라는 제하의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베드로선교회 회계를 맡은 오치

열 집사이다. 베드로선교회에서는 매달 가지는 모임을 좀더 뜻있게 하고 보다 많은 회원을 참여토록 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월례회 때마다 특강을 가지기로 했다.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29일(화) 명성교회당에서 열리는 "2000년 장로교대회 열린마당2000"에서 "신앙과 경제"라는 제하의 특강을 한다.
- * 김어진 성도(4교구 김태기 장로·윤문자 권사 아들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 김규태·박미혜 집사 가정에서는 새 예배당 입구에 건축현장을 찾기 쉽도록 서울교회 표지판을 제작, 설치했다.
- * 신용식·김신영 집사 가정에서는 찬양대 가운 10벌과 커피자판기를 기증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서문석 장로·한춘홍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유치부는 28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이사

- * 이미희 집사·백영희 권사, 송파구 문정동으로 (☎ 431 - 3820)

전화번호변경

- * 최재규·천정화 집사 (☎ 424 - 5941)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2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환영식에 앞이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된 새가족 *

- 김동찬 주승희 김규원 임종빈 배진희 서영신 배정자 최진순 김홍경 이철우 홍의숙 신선희 정 건 김금란 함선녀 이혜정 송남석 유동선 하현영 조미정 이영자 정세하 김영혁 이혜진 최병천 김지연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김찬진	양영선 양은아 전복자 박은자
이인선	김민준 황보은 신경숙

- *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배 후에 403호실에서 열립니다.
- * 100교회 운동 후원자들은 후원금을 매달 둘째 주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3면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한명 한명에게 전도의 손길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명 한명씩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귀기울여주시는구나."

첫째날 찬양 시간에 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비록 적은 수이나 너무나도 열심인 찬양팀과 모두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느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 하나 하나에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목사님께서 회개의 중요함을 선포하셨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회

개는 매우 중요한 것이란 걸 알았다. 그 시간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회개 기도를 분명히 들어 주셨고, 우리는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

둘째 날 있었던 성경퀴즈는 요한복음을 주제로 진행됐다. 재미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를 계기로 성경말씀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김밥말기 시간에는 서로 김밥을 만들어 먹어 주면서, 재미에 더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아쉬웠던 점은 기간이 짧았던 점이다. 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먼 곳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진정 보살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음에 우리는 너무 감사했다. 다시 한번 고등부의 부흥을 소망해 본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테마전도주일을 기해 초청된 새가족과 태신자를 위해
2.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3.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교외약도

